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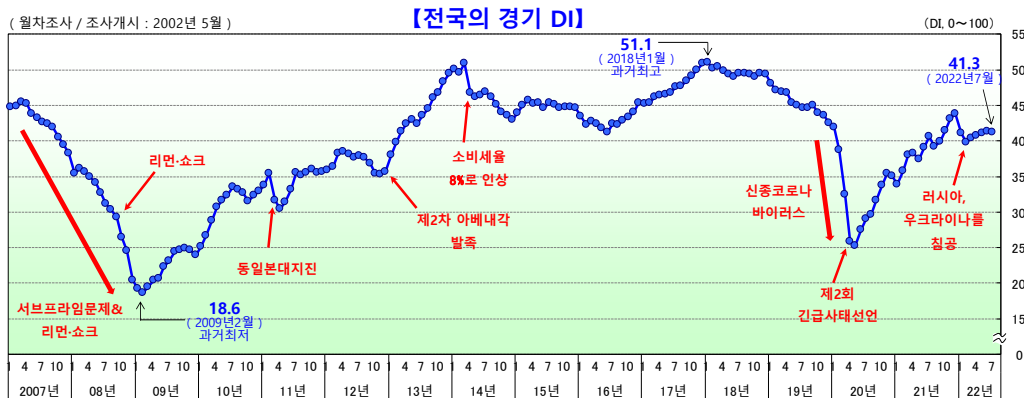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소폭이지만 5개월 만에 악화

~ 잇따른 가격인상 가운데 감염자수 급증이 재차 타격 ~

(조사대상 2만 5,723사, 유효회답 1만 1,503사, 회답율 44.7%,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2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41.3으로 5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계절수요가 일부에서 나타났으나 감염자수 증가에 따른 개인 소비 관련 내림세가 영향을 미쳐 소폭이지만 5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내림세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대체로 보합 경향의 추이가 전망된다.
- 『제조』『건설』 등 6개 업계가 개선된 한편 『소매』『서비스』 등 4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자동차 등 『제조』의 생산이 약간 상향한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대의 영향으로 개인 서비스가 다시 하락되었다. 또한 신규 감염자수 증가로 인한 출근제한 등 고용면으로 영향이 나타난 업종도 보였다.
- 10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악화, 4개 지역이 개선, 2개 지역이 보합으로 나타났다. 도쿄 23구(区) 등 감염자수가 급증한 지역의 체감경기가 하락하였다. 또한 GoTo캠페인 등 전국 여행 지원의 연기로 국내여행 부진도 나타났다. 규모면에서는 「대기업」이 3개월 만에 「중소기업」「소규모기업」은 모두 5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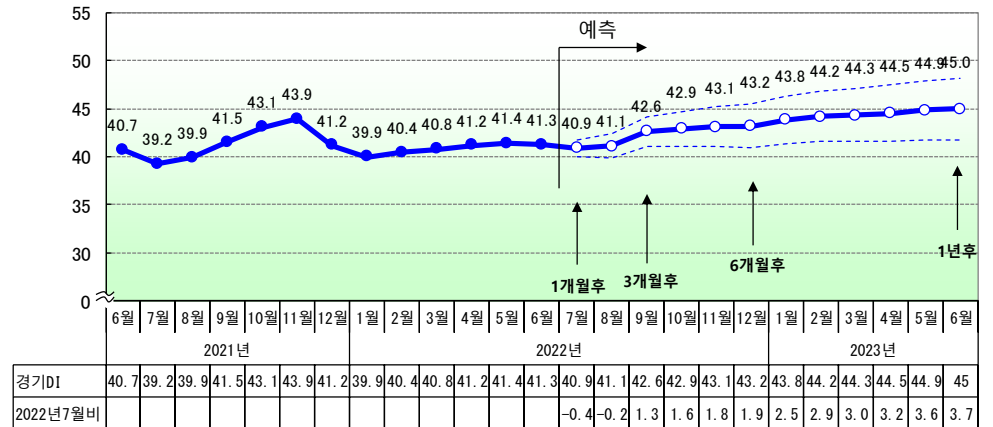
< 2022년 7월의 동향 : 소폭 악화 >

2022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41.3으로 5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7월의 국내경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수가 1일당 20만명을 넘는 등 다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특별한 행동적 제한은 두지 않았으나 신중한 소비행동 및 출근 인원수 제한 등의 영향을 받았다. 식품 등 생활필수품의 잇따른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심리가 계속 얼어붙었다. 게다가 원유 및 LNG 가격의 고공행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과 석유가격 급등으로 더블 펀치 영향이 나오고 있다(주유소)와 같은 목소리가 있듯 전월에 상향했던 소매업 및 대면 서비스가 침체하였다. 한편 무더위로 인한 냉방기기 판매 및 설치공사 등이 활발했던 한편 반도체 업계도 호조가 계속되었다. 국내경기는 계절수요가 일부에서 나타났으나 감염자수 증가에 따른 개인 소비 관련 내림세가 영향을 미쳐 소폭이지만 5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내림세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대개 보합 경향 >

향후 1년간 정도의 국내경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행방 외에 원유·원재료가 가격의 고공행진 및 엔저(円低) 진행, 물가상승 및 계속된 공급 제약, 신종 코로나 감염 동향, 인력부족, 미국·유럽·중국 경제의 하향 우려 등 불투명한 경제상황 가운데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식품 등의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고조된 절약 지향은 개인소비를 제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력 수급에 꺾박을 받는 상황도 우려 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개인 서비스 관련 회복과 함께 자동차 만회 생산, 각종 경제대책 집행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의 경기는 내림세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대체로 보합 경향의 추이가 전망된다.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